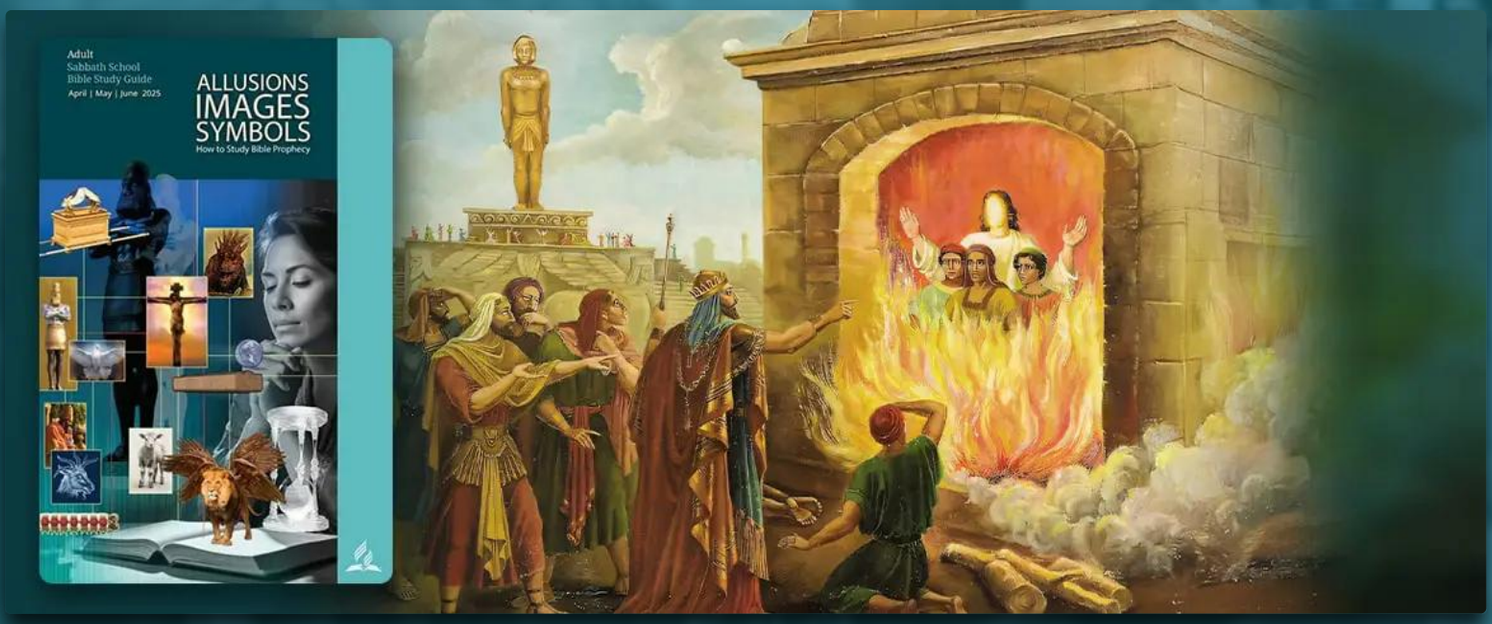
전조

제 12과, 2분기, 6월 14일-20일, 2025



안식일 오후 6월 14일

기억 본문:

기억 본문: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온전한 마음을 주셨느니라.” KJV - 디모데후서 1:7

“For God hath not given us the spirit of fear; but of power, and of love, and of a sound mind.” KJV — 2Timothy 1:7

“하나님께서 하늘 한가운데를 날아다니는 거룩한 천사들이 선포하는 것으로 표현될 만큼 중요한 경고를 사람들에게 보내실 때, 추리력을 부여받은 모든 사람이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것을 요구하십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 숭배에 대한 두려운 심판(요한계시록 14:9-11)이 선포되면 모든 사람이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그 표를 받지 않을 수 있는지 알기 위해 예언을 부지런히 연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듣지 않고 귀를 돌리고 우화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날을 바라보며 '그들이 건전한 교훈을 견디지 못할 때가 올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3. 그 때가 완전히 왔습니다. 많은 무리는 성서 진리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죄 많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의 욕망을 방해하기 때문이며, 사탄은 그들이 사랑하는 미혹을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GC 594.2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교리의 표준과 모든 개혁의 기초로서 성경과 오직 성경을 지키기 위해 지상에 한 백성을 두실 것이다. 학자들의 의견, 과학의 연역, 교회 공의회의 신조나 결정, 그들이 대표하는 교회들만큼이나 다양하고 불일치하

는 다수의 목소리, 이 중 어느 하나도, 또는 전부가 종교적 신앙의 어떤 지점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증거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교리나 교훈을 받아들이기 전에 우리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는 분명한 근거를 요구해야 합니다." GC 595.1

"When God sends to men warnings so important that they are represented as proclaimed by holy angels flying in the midst of heaven, He requires every person endowed with reasoning powers to heed the message. The fearful judgments denounced against the worship of the beast and his image (Revelation 14:9-11), should lead all to a diligent study of the prophecies to learn what the mark of the beast is, and how they are to avoid receiving it. But the masses of the people turn away their ears from hearing the truth and are turned unto fables. The apostle Paul declared, looking down to the last days: "The time will come when they will not endure sound doctrine." 2 Timothy 4:3. That time has fully come. The multitudes do not want Bible truth, because it interferes with the desires of the sinful, world-loving heart; and Satan supplies the deceptions which they love. GC 594.2

"But God will have a people upon the earth to maintain the Bible, and the Bible only, as the standard of all doctrines and the basis of all reforms. The opinions of learned men, the deductions of science, the creeds or decisions of ecclesiastical councils, as numerous and discordant as are the churches which they represent, the voice of the majority—not one nor all of these should be regarded as evidence for or against any point of religious faith. Before accepting any doctrine or precept, we should demand a plain "Thus saith the Lord" in its support." GC 595.1

6월 15일 주일

다니엘서 2장과 예언에 대한 역사주의적 접근법

다니엘 2장 31-45절을 읽으세요. 느부갓네살의 꿈은 무엇이었으며 다니엘은 이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멸망한 왕국, 아직 존재하는 왕국, 아직 오지 않은 왕국,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법이 있는 왕국들은 다니엘과 요한 계시록 기자에 의해 그림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대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왕국의 존속 기간에 대해 고민하던 중 꿈에서 네 가지 금속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형상을 보았습니다. 머리는 "금", 가슴과 팔은 "은", 허벅지는 "놋", 다리는 "철", 발은 "진흙과 섞인 철"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말한 환상을 해석합니다:

큰 신상의 네 금속은 네 짐승과 마찬가지로 각기 다른 시대에 네 왕이 계승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철과 진흙의 발(오른쪽과 왼쪽)은 분명히 다섯 번째 시대, 즉 하늘의 신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왕국을 세우는" 시대에 두 부류의 왕(우파와

좌파)을 나타냅니다. 물론 발의 발가락은 우파와 좌파 양쪽의 여러 왕을 나타냅니다.

“다니엘은 “이 왕들의 시대[그 후가 아니라 큰 신상의 발과 발가락으로 상징되는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왕국을 세우시리니 그 왕국은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 왕국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그[왕국]가 산산이 부서져서 이 모든 나라를 삼키고 영원히 서리라”고 말합니다. 단 2:44. 따라서 우리는 우리 시대의 나라들(다니엘 2:41, 42의 큰 신상의 발과 발가락으로 상징되는)이 아직 존재하는 동안 주님께서 그들을 전복시킬 왕국을 세우실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리라: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시리라.” 요한계시록 11:15.

무엇이 이미지를 때리나요? 다니엘이 계시하는 돌은 회복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까? 또한 그 형상이 손 없이 산에서 잘려나간 후에야 그 돌에 맞고, 그 후에는 자라나서 땅을 채우고, 결국에는 스스로 산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이 진리를 설명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덧붙입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의 집의 산이 산 꼭대기에 세워지고 언덕 위에 높아질 것이며 모든 민족이 그에게로 흘러갈 것입니다. 많은 백성이 가서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 곧 야곱의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하리니 그가 우리에게 그의 길을 가르치시리니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로다 이는 시온에서 율법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올 것임이니라.” 이사야 2:2, 3.

따라서 한 산에서 초자연적으로 잘라낸 돌이 초자연적으로 다른 산으로 변하여 온 땅을 채울 때, 그것은 예언이 역사로 바뀌는 과정을 드러낸다 : 돌 (자랄 것이라는 점에서)은 왕국의 첫 열매를 상징한다; 유아 왕국은 144,000 명의 “하나님의 종들”로 시작된다 (계 7 : 3); 결과적으로 라오디게아 교회 (밀과 가라지가 혼합 된 마지막 교회라는 점에서); 그리고 그것은 밀과 가라지가 혼합 된 마지막 교회입니다. 7:3); 결과적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밀과 가라지가 섞이는 마지막 교회이며, 따라서 144,000명의 첫 열매인 밀이 추수되는 곳이라는 점에서) 왕국의 첫 열매인 돌을 잘라내거나 가져가는 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이 인간의 도움 없이 “손이 없이 잘려나가는” 것은 그들이 천사들에 의해 얻어졌다는 사실을 분명히 지적하고, 돌의 성장에서 드러나듯이 그들의 증가는 모든 나라에서 둘째 열매가 모여 산 또는 왕국이 땅에 가득 차게 된 결과이며, 왕국의 핵인 144,000을 분리하는 이 초자연적인 돌을 잘라내는 일이 교회의 정화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돌이 잘려나가고 - 유아 왕국이 세워지는 것은 그들의 시대 이후에가 아니라 “이 왕들(발가락 왕들)의 시대에”(계 14:1), 그리고 144,000의 “하나님의 종들”이 시온 산에 서 있기 때문에(계 14:1), 결론적으로 발가락 왕들이 아직 존재하는 동안 태초에 돌 왕국이 성지에 세워진다는 것이 뒤따릅니다.

그러므로 의심할 여지없이, 태초에 하나님의 정부를 구성하는 죄 없는 하나님의 종 144,000명(계 14:5)은 그 형상을 치는 돌이며, 이후 온 땅을 가득 채우는 큰 산이 되어 결국 모든 지상 정부를 전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온 세상에서 그들 외에 누가, 참으로 그들 외에는 누구에 대해 기록될 수 있겠는가:

“... 그들은 경탄할 만한 사람들이니... 큰 백성이요 강한 자들이라 지금까지 이와 같은 자가 없었고 그 후에도 여러 세대에 이르기까지 다시는 없을 것이라.” 슥 3:8; 욜 2:2

The kingdoms that have gone down, the kingdoms that still exist, and the kingdoms that are yet to come, whose legislations involve God’s people, have been pictorially chronicled by both Daniel and John the Revelator.

Nebuchadnezzar, king of ancient Babylon while in a quandary as to the duration of his kingdom, was shown in a dream a great image composed of four metals. Its head was of “gold”; its breast and arms were of “silver”; its thighs, of “brass”; its legs, of “iron”; and its feet, of “iron mixed with miry clay.” Interpreting the vision Daniel said to the king:

The four metals of the great image symbolize, as do the four beasts, a succession of four kings in their respective periods. The feet (right and left) of iron and clay obviously represent two divisions of kings (rightists and leftists) in a fifth period – the time in which the God of Heaven shall "set up a kingdom, which shall never be destroyed." The toes of the feet, indicate, of course, a multiplicity of kings in both parties, the rightists and the leftists.

"In the days of these kings [not after, but in the days of the kings who are symbolized by the feet and toes of the great image] shall the God of heaven," says Daniel, calling attention to the kingdom at its beginning, "set up a kingdom, which shall never be destroyed: and the kingdom shall not be left to other people but it [the kingdom] shall break in pieces and consume all these kingdoms, and it shall stand forever." Dan. 2:44. Thus we see that while the nations of our age (symbolized by the feet and toes of the great image of Daniel 2:41, 42) are yet in existence, the Lord will set up the kingdom with which He will overthrow them. Then it shall be said: "The kingdoms of this world are become the kingdoms of our Lord, and of His Christ; and He shall reign for ever and ever." Rev. 11:15.

What smites the image? Is it not the stone which Daniel reveals is symbolical of the Kingdom of God restored? Also keep in mind the fact that the image is not smitten by the stone until after it (the stone) is cut out of the mountain, without hands, and that afterwards it grows and fills the earth, thus in turn becoming a mountain of itself. In elucidation of this truth, the prophet Isaiah adds:

"And it shall come to pass in the last days, that the mountain of the Lord's house shall be established in the top of the mountains, and shall be exalted above the hills; and all nations shall flow unto it. And many people shall go and say, Come ye, and let us go up to the mountain of the Lord, to the house of the God of Jacob; and He will teach us of His ways, and we will walk in His paths: for out of Zion shall go forth the law, and the word of the Lord from Jerusalem." Isa. 2:2, 3.

Thus as the stone, supernaturally cut out of one mountain, supernaturally turns into another mountain, then fills the whole earth, it reveals the process of the prophecy's turning into history: that the stone (in that it is to grow) is symbolical of the first-fruits in the kingdom; that the infant kingdom begins with the 144,000 "servants of God" (Rev. 7:3); that consequently the church of Laodicea (in that it is the last in which the wheat and the tares commingle, and therefore the one in which the wheat, the 144,000 first fruits, is harvested) is necessarily the mountain out of which the stone, the first fruit of the kingdom, is cut or taken from.

Further, it is seen that their being "cut out without hands," without human aid, obviously points out the fact that they are garnered by the angels; that their increasing, then, as the growth of the stone reveals, is the result subsequently of the gathering of the second fruits out of all nations, causing the mountain or kingdom, to fill the earth; and that this super-natural work of cutting out the stone, of separating the 144,000, the nucleus of the kingdom, is the purification of the church.

Finally, since the stone, as has been seen, is cut out – the infant kingdom set up – "in the days of these kings" (the toe-kings), not after their days, and since the 144,000 "servants of God" stand on mount Zion (Rev. 14:1), it conclusively follows that the stone kingdom in its beginning is set up in the Holy Land, while the toe-kings are yet in existence.

Beyond question, therefore, the 144,000 guileless servants of God (Rev. 14:5), composing the government of God in its beginning, the stone which smites the image, and which subsequently becomes a great mountain that fills the whole earth, are instrumental in the eventual overthrow of all earthly governments. Accordingly, therefore, of who else at that time in all the world, of who else indeed but themselves, could it be written:

"...they are men wondered at;...a great people and a strong; there hath not been ever the like, neither

shall be any more after it, even to the years of many generations." Zech. 3:8; Joel 2:2.

6월 16일 월요일

성상 숭배

다니엘 3:1-12을 읽는다. 신상이 모두 금이었다는 사실과 왕이 신상에게 경배를 요구했다는 사실에서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너는 이 금 머리'라는 말씀이 통치자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38절. 그의 왕국의 현자들은 그가 우상 숭배로 돌아간 것을 이용하여, 꿈에서 본 것과 비슷한 형상을 만들어 모든 사람이 왕국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금 머리를 볼 수 있는 곳에 세우자고 제안했다." PK 504.1

"아첨하는 제안에 만족한 그는 그 제안을 실행에 옮기고 더 멀리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이 보았던 이미지를 그대로 재현하는 대신 원본을 뛰어넘는 작품을 만들기로 했다. 그의 신상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가치가 떨어지지 않아야 하며, 바빌론 전체가 영원하고 불멸하며 전능한 왕국으로서 다른 모든 왕국을 무너뜨리고 영원히 서야 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금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PK 504.2

"느부갓네살은 풍부한 보물 창고에서 거대한 황금 신상을 만들게 했는데, 그 신상의 재료 중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특징이 환상에서 보았던 것과 비슷했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은 이방 신들의 장엄한 표현에 익숙했지만, 높이가 3규빗, 너비가 6규빗에 달하는 이 화려한 조각상처럼 위엄 있고 장엄한 것을 만들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이 땅에서 바빌론의 영광과 그 웅장함과 힘을 상징하는 두라 평야의 아름답고 귀중한 상을 숭배의 대상으로 봉헌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봉헌하는 날 모든 사람이 이 신상 앞에 절을 함으로써 바빌론 권력에 대한 최고의 충성을 보여야 한다는 법령이 내려졌습니다." PK 505.2

"The words, "Thou art this head of gold," had made a deep impression upon the ruler's mind. Verse 38. The wise men of his realm, taking advantage of this and of his return to idolatry, proposed that he make an image similar to the one seen in his dream, and set it up where all might behold the head of gold, which had been interpreted as representing his kingdom. PK 504.1

"Pleased with the flattering suggestion, he determined to carry it out, and to go even farther. Instead of reproducing the image as he had seen it, he would excel the original. His image should not deteriorate in value from the head to the feet, but should be entirely of gold—symbolic throughout of Babylon as an eternal, indestructible, all-powerful kingdom, which should break in pieces all other kingdoms and stand forever." PK 504.2

"From his rich store of treasure, Nebuchadnezzar caused to be made a great golden image, similar in its general features to that which had been seen in vision, save in the one particular of the material of which it was composed. Accustomed as they were to magnificent representations of their heathen deities, the Chaldeans had never before produced anything so imposing and majestic as this resplendent statue, threescore cubits in height and six cubits in breadth. And it is not surprising that in a land where idol worship was of universal prevalence, the beautiful and priceless image in the plain of Dura, representing the glory of Babylon and its magnificence and power, should be consecrated as an object of worship. This was accordingly provided for, and a decree went forth that on the day of the dedication all should show their supreme loyalty to the Babylonian power by bowing before the image." PK 505.2

다니엘 3장 17절, 18절을 읽고 왕에게 반항하는 세 히브리 소년의 말을 읽어보세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 무엇을 가르치며 때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Read Daniel 3:17, 18, the words of the three Hebrew boys in defiance of the king. What does this teach us about faith and what at times it could demand of us?

"왕의 협박은 헛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우주의 통치자에 대한 충성에서 돌이키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조상들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불명예와 재앙과 죽음을 초래한다는 것과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며 모든 진정한 번영의 기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용광로를 향해 침착하게 말하기를, '느부갓네살이여,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주께 대답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만일 [왕의 뜻이 이러하다면]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타오르는 풀무불에서 건져내실 수 있으며, 왕이여, 우리를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구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믿음이 더욱 굳건해졌고, 하나님에 대한 암묵적인 신뢰에서 나온 승리의 확신으로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왕이여 우리가 주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주께서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것임을 왕에게 알리소서' 하고 덧붙였습니다." PK 507.3

"그러자 이 사람들은 외투와 갓과 모자와 다른 의복이 결박되어 타오르는 풀무 가운데로 던져졌다. 그러므로 왕의 명령이 급박하고 풀무가 지나치게 뜨거웠으므로, 불의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차지한 사람들을 죽였다." PK 508.2

"왕은 왕좌에서 자신을 거역한 자들이 완전히 파괴되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승리의 감정은 갑자기 변했습니다. 근처에 서 있던 귀족들이 왕의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왕이 왕좌에서 일어나 타오르는 불길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놀란 왕은 신하들을 향해 '우리가 세 사람을 불 가운데에 묶어 던지지 않았습니까?... 보라, 네 사람이 풀려서 불 가운데서 걸어가는 것을 보았는데, 그들은 다치지 않았고, 네 번째 사람의 모양은 하느님의 아들과 같았다." PK 509.1

"그 이방인 왕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알았을까? 바벨론에서 신뢰의 자리를 채우고 있던 히브리 포로들은 삶과 인격에서 그의 앞에 진리를 대표했습니다. 믿음의 이유를 물었을 때 그들은 주저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분명하고 간단하게 의의 원리를 제시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그들이 숭배하는 하나님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오실 구속주이신 그리스도에 대해 말했고, 불 가운데서 넷째의 모습으로 왕은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았습니다." PK 509.2

"중요한 것은 두라 평야에서 히브리 청년들이 겪은 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이 시대에는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잘못은 없지만 사탄의 영감을 받아 시기심과 종교적 편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의 손에 굴욕과 학대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제 4계명의 안식일을 거룩히 여기는 자들에 대해 인간의 진노가 일어날 것이며, 마침내 보편적인 법령이 이들을 죽어 마땅한 자들로 비난할 것입니다." PK 512.1

"하나님의 백성 앞에 닥친 고난의 계절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분의 자녀들은 그분만이 그들의 유일한 숭배의 대상임을 분명히 해야 하며, 그 어떤 대가, 심지어 생명 자체에 대한 대가도 거짓 숭배에 조금이라도 양보하도록 유도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충성스러운 마음에게는 죄 많고 유한한 인간의 명령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찮은 것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그 결과가 투옥이나 추방 또는 죽음이 되더라도 진리는 순종할 것입니다." PK 512.2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지구 역사의 마지막 시기에 주님은 옳음을 위해 굳건히 서 있는 사람들을 위해 강력하게 일하실 것이다. 히브리의 합당한 자들과 풀무불 속에서 함께 걸으셨던 주님은 그분의 추종자들이 어디에 있든 함께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가 위로와 지탱이 될 것입니다. 국가가 생긴 이래로 없었던 고난의 시간 한가운데서 그분의 택한 자들은 흔들림 없이 서 있을 것입니다. 사탄은 모든 악의 무리와 함께 하나님의 가장 연약한 성도들을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힘이 뛰어난 천사들이 그들을 보호할 것이며, 그들을 대신하여 여호와께서는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는 '신들 중의 신'으로 자신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PK 513.1

“In vain were the king's threats. He could not turn the men from their allegiance to the Ruler of the universe. From the history of their fathers they had learned that disobedience to God results in dishonor, disaster, and death; and that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wisdom, the foundation of all true prosperity. Calmly facing the furnace, they said, “O Nebuchadnezzar, we are not careful to answer thee in this matter. If it be so [if this is your decision], our God whom we serve is able to deliver us from the burning fiery furnace, and He will deliver us out of thine hand, O king.” Their faith strengthened as they declared that God would be glorified by delivering them, and with triumphant assurance born of implicit trust in God, they added, ‘But if not, be it known unto thee, O king, that we will not serve thy gods, nor worship the golden image which thou hast set up.’” PK 507.3

“‘Then these men were bound in their coats, their hosen, and their hats, and their other garments, and were cast into the midst of the burning fiery furnace. Therefore because the king's commandment was urgent, and the furnace exceeding hot, the flame of the fire slew those men that took up Shadrach, Meshach, and Abednego.’” PK 508.2

“From his royal seat the king looked on, expecting to see the men who had defied him utterly destroyed. But his feelings of triumph suddenly changed. The nobles standing near saw his face grow pale as he started from the throne and looked intently into the glowing flames. In alarm the king, turning to his lords, asked, “Did not we cast three men bound into the midst of the fire? ... Lo, I see four men loose, walking in the midst of the fire, and they have no hurt; and the form of the fourth is like the Son of God.” PK 509.1

“How did that heathen king know what the Son of God was like? The Hebrew captives filling positions of trust in Babylon had in life and character represented before him the truth. When asked for a reason of their faith, they had given it without hesitation. Plainly and simply they had presented the principles of righteousness, thus teaching those around them of the God whom they worshiped. They had told of Christ, the Redeemer to come; and in the form of the fourth in the midst of the fire the king recognized the Son of God.” PK 509.2

“Important are the lessons to be learned from the experience of the Hebrew youth on the plain of Dura. In this our day, many of God's servants, though innocent of wrongdoing, will be given over to suffer humiliation and abuse at the hands of those who, inspired by Satan, are filled with envy and religious bigotry. Especially will the wrath of man be aroused against those who hallow the Sabbath of the fourth commandment; and at last a universal decree will denounce these as deserving of death. PK 512.1

“The season of distress before God's people will call for a faith that will not falter. His children must make it manifest that He is the only object of their worship, and that no consideration, not even that of life itself, can induce them to make the least concession to false worship. To the loyal heart the commands of sinful, finite men will sink into insignificance beside the word of the eternal God. Truth will be obeyed though the result be imprisonment or exile or death. PK 512.2

“As in the days of Shadrach, Meshach, and Abednego, so in the closing period of earth's history the Lord will work mightily in behalf of those who stand steadfastly for the right. He who walked with the Hebrew worthies in the fiery furnace will be with His followers wherever they are. His abiding presence will comfort and sustain. In the midst of the time of trouble—trouble such as has not been since there was a nation—His chosen ones will stand unmoved. Satan with all the hosts of evil cannot destroy the weakest of God's saints. Angels that excel in strength will protect them, and in their behalf Jehovah will reveal Himself as a “God of gods,” able to save to the uttermost those who have put their trust in Him.” PK 513.1

6월 17일 화요일

다시 이미지 숭배하기

요한계시록 13:11-17; 요한계시록 14:9, 11, 12; 요한계시록 16:2; 요한계시록 19:20; 그리고 요한계시록 20:4를 읽는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명과 인간의 계명을 대비시키는 어떤 대조가 있는가?

Read Revelation 13:11–17; Revelation 14:9, 11, 12; Revelation 16:2; Revelation 19:20; and Revelation 20:4. What contrast is present here that pits the commandments of God against the commandments of men?

두 뿔이 있는 짐승은 표범과 같은 첫 번째 짐승이 행사했던 모든 권세를 행사하며 다시 한 번 세계 강대국임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지구상의 모든 주민들이 그의 명령대로 예배하도록 강요하고 중세 시대만큼이나 시대에 뒤떨어진 교회와 국가 정부를 구현하려면 그러한 힘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외에는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그들에게 절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힘이 필요합니다.

짐승의 법령이 통과되어 누구도 사고 팔 수 없으며 부적합하면 죽임을 당해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직 “책”에 이름이 기록 된 사람들 인 그의 백성을 보호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지평선 너머에 있지 않은이 일이 일어나면“생명 책”에 이름이 기록 된 사람들은 구원을받을 것이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중간이나 중간 계급은 없을 것입니다.

The two-horned beast exercises all the power which the first beast, the leopard-like, exercised, again showing it to be a world power. Indeed, it requires just such a power to compel all the inhabitants of the earth to worship as he commands, and to implement a likeness of a church and state government that is as outdated as are the Middle Ages themselves. Yes, it takes such a power to influence the world, save those whose names are written in the Lamb’s Book of Life, to bow down to it.

When the beast’s decree is passed that no one can buy or sell, and should be killed for non-conformity, then God only can protect His people, the people whose names are written in “The Book.”

When this comes to pass, which is no longer beyond the horizon, then those whose names are written in the “Book of Life” shall be delivered, but all others will have received the mark of the beast. There will be no middle ground, or middle class.

로마서 1:18-25을 읽습니다. (로마서 1:18과 요한계시록 14:9, 10의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연결 고리에 주목하세요.)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는 인간이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충성을 바칠 것인가에 관한 동일한 원칙의 또 다른 표현일 뿐인가요?

Read Romans 1:18–25. (Notice the link between Romans 1:18 and Revelation 14:9, 10 about “the wrath of God.”) In what way is the issue over worshiping the image just another manifestation of this same principle regarding to whom humans ultimately give their allegiance?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하나님의 진노는 마지막 일곱 재앙이며(계 15:1), 유예 기간이 끝나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하는 기간에 방문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는 대조적으로, 세 번째 천사는 다른 부류를 가리키며, 그들의 잘못에 대해 엄숙하고 두려운 경고가 내려집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마에나 손에 그의 표를 받으면 그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라'. 요한계시록 14:9, 10. 이 메시지를 이해하려면 사용된 상징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필요합니다. 짐승, 이미지, 표는 무엇을 상징하나요?” GC 438.1

“두 뿔을 가진 짐승이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다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되 그 표나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고 팔지 못하게 [명하더라]. 요한계시록 13:16, 17. 세 번째 천사의 경고는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마에나 손에 그의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에서 언급된 '짐승'은 두 뿔이 있는 짐승이 경배를 강요하는 것으로, 요한계시록 13장의 첫 번째 또는 표범 같은 짐승, 즉 교황권을 가리킵니다. “짐승의 형상"은 개신교 교회가 교리를 집행하기 위해 시민 권력의 도움을 구할 때 발전하게 될 배교적인 개신교의 형태를 나타냅니다. “짐승의 표"는 아직 정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GC 445.2

The wrath of God, as commonly understood, is the seven last plagues (Rev. 15:1), and is visited during the period between the close of probation and the second coming of Christ.

“In contrast to those who keep the commandments of God and have the faith of Jesus, the third angel points to another class, against whose errors a solemn and fearful warning is uttered: “If any man worship the beast and his image, and receive his mark in his forehead, or in his hand, the same shall drink of the wine of the wrath of God.” Revelation 14:9, 10. A correct interpretation of the symbols employed is necessary to an understanding of this message. What is represented by the beast, the image, the mark?” GC 438.1

“The beast with two horns “causeth [commands] all, both small and great, rich and poor, free and bond, to receive a mark in their right hand, or in their foreheads: and that no man might buy or sell, save he that had the mark, or the name of the beast, or the number of his name.” Revelation 13:16, 17. The third angel's warning is: “If any man worship the beast and his image, and receive his mark in his forehead, or in his hand, the same shall drink of the wine of the wrath of God.” “The beast” mentioned in this message, whose worship is enforced by the two-horned beast, is the first, or leopardlike beast of Revelation 13—the papacy. The “image to the beast” represents that form of apostate Protestantism which will be developed when the Protestant churches shall seek the aid of the civil power for the enforcement of their dogmas. The “mark of the beast” still remains to be defined.” GC 445.2

6월 18일 수요일

초대 교회 박해

사도행전 12:1-17을 읽는다. 이 이야기에서 마지막 날의 사건을 예고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Read Acts 12:1–17. What elements of this story might foreshadow last-day events?

“회의론자들은 하늘에서 온 영광스러운 천사가 인간의 단순한 필요를 돌보는 것과 같은 평범한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생각에 비웃을 수도 있고, 이야기의 영감에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로 이러한 일들은 천사가 아닌 인간의 유익을 위해 성스러운 역사에 기록된 것이며, 인간은 어려운 처지에 놓일 때 하늘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생각에서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참새 한 마리도 하늘 아버지의 통지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공중의 모든 작은 새들의 필요를 기억하실 수 있다면, 그분은 그분의 왕국의 신민이 될 수 있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불멸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훨씬 더 돌보실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오, 인간의 마음이 구속의 계획을 유한한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이해한다면, 즉 예수께서 인간 본성을 취하신 일과 이 놀라운 겸손으로 우리를 위해 성취될 일을 이해한다면,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한 감사로 녹아지고 겸손으로 은혜의 신비를 고안하신 신성한 지혜에 경배할 것이다!” 5T 749.1

“오늘날 하늘의 천사들이 구원의 상속자가 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보내졌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누구인지 아직 알지 못하며, 누가 빛 안에서 성도들의 유업을 이기고 나눌 것인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하늘의 천사들이 땅의 길이와 넓이를 두루 다니며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위태로운 자들을 보호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소홀히 하거나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으시며, 그분께서 창조하신 모든 영혼을 동등하게 돌보십니다.” ST 12월 13일, 1905, par. 6

“베드로를 박해자의 권세에서 구하기 위해 하늘의 왕궁을 떠났던 그 천사는 헤롯에게 진노와 심판의 사자였습니다. 그 천사는 베드로를 쳐서 잠에서 깨웠지만, 악한 왕을 쳐서 그에게 치명적인 질병을 가져온 것은 다른 일격이었습니다.” - 예언의 영 3:344. TA 234.1

“Skeptics may sneer at the thought that a glorious angel from heaven should give attention to a matter so commonplace as caring for these simple human needs, and may question the inspiration of the narrative. But in the wisdom of God these things are recorded in sacred history for the benefit, not of angels, but of men, that as they should be brought into trying positions they might find comfort in the thought that heaven knows it all. Jesus declared to His disciples that not a sparrow falls to the ground without the notice of the heavenly Father, and that if God can keep in mind the wants of all the little birds of the air, He will much more care for those who may become the subjects of His kingdom and through faith in Him may be the heirs of immortality. Oh, if the human mind were only to comprehend—in such measure as the plan of redemption can be comprehended by finite minds—the work of Jesus in taking upon Himself human nature, and what is to be accomplished for us by this marvelous condescension, the hearts of men would be melted with gratitude for God's great love, and in humility they would adore the divine wisdom that devised the mystery of grace!” 5T 749.1

“Today angels of heaven are sent forth to minister to those who shall be heirs of salvation. We know not now who they are; it is not yet made manifest who shall overcome and share the inheritance of the saints in light; but angels of heaven are passing throughout the length and breadth of the earth, seeking to comfort the sorrowing, to protect the imperilled, to win the hearts of men to Christ. Not one is neglected or passed by. God is no respecter of persons, and He has an equal care for all the souls He has created." ST December 13, 1905, par. 6

"The same angel who had left the royal courts of heaven to rescue Peter from the power of his persecutor, had been the messenger of wrath and judgment to Herod. The angel smote Peter to arouse him from slumber; but it was with a different stroke that he smote the wicked king, bringing mortal disease upon him.—The Spirit of Prophecy 3:344." TA 234.1

6월 19일 목요일

짐승의 표

마태복음 12:9-14과 요한복음 5:1-16을 읽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 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Read Matthew 12:9–14 and John 5:1–16. What issue caused the religious leaders to want to kill Jesus?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긴 혐의를 받고 산헤드린에 끌려가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독립 국가였다면 그런 죄목으로 예수를 사형에 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에 대한 복종이 이를 막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고, 그리스도에 대한 고발은 로마 법정에서 아무런 무게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확보하고자 했던 다른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방해하려는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예루살렘에서조차 그들보다 더 큰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끼치고 계셨습니다. 랍비들의 헛소리에 관심이 없던 많은 무리가 그분의 가르침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복수하는 심판자가 아니라 자상한 아버지로서 말씀하셨고, 자신에 비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상처받은 영혼에 향유와 같았습니다. 그분은 말씀과 자비의 행위로 옛 전통과 인간이 만든 계명의 억압적인 힘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지칠 줄 모르는 충만함으로 나타내셨습니다." DA 204.4

"예수님은 '율법을 영화롭게 하고 존귀하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율법의 존엄성을 낮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높이기 위해 오셨습니다. 성경은 '그분은 땅에 심판을 세우기까지 실패하거나 낙심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42:21, 4. 그분은 안식일을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게 하는 부담스러운 요구 사항으로부터 안식일을 해방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DA 206.1

"이런 이유로 그분은 베데스다에서 치유 행위를 행하기 위해 안식일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은 다른 요일에도 병자를 고치실 수 있었으며, 또는 병자에게 침상을 치우라고 하지 않으시고 단순히 고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주님이 원하셨던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상 생애의 모든 행동에는 현명한 목적이 깔려 있습니다.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은 그 자체로 그리고 그 가르침으로 중요했습니다. 그분은 못가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가운데

서 그분의 치유 능력을 발휘할 최악의 사례를 선택하셨고, 그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을 알리기 위해 그 사람에게 침상을 들고 도시로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안식일에 무엇을 하는 것이 합법적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주일에 관한 유대인들의 제한을 비난하고 그들의 전통을 무효라고 선언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DA 206.2

"Jesus was brought before the Sanhedrin to answer the charge of Sabbathbreaking. Had the Jews at this time been an independent nation, such a charge would have served their purpose for putting Him to death. This their subjection to the Romans prevented. The Jews had not the power to inflict capital punishment, and the accusations brought against Christ would have no weight in a Roman court. There were other objects, however, which they hoped to secure. Notwithstanding their efforts to counteract His work, Christ was gaining, even in Jerusalem, an influence over the people greater than their own. Multitudes who were not interested in the harangues of the rabbis were attracted by His teaching. They could understand His words, and their hearts were warmed and comforted. He spoke of God, not as an avenging judge, but as a tender father, and He revealed the image of God as mirrored in Himself. His words were like balm to the wounded spirit. Both by His words and by His works of mercy He was breaking the oppressive power of the old traditions and man-made commandments, and presenting the love of God in its exhaustless fullness." DA 204.4

"Jesus had come to "magnify the law, and make it honorable." He was not to lessen its dignity, but to exalt it. The scripture says, "He shall not fail nor be discouraged, till He have set judgment in the earth." Isaiah 42:21, 4. He had come to free the Sabbath from those burdensome requirements that had made it a curse instead of a blessing. DA 206.1

"For this reason He had chosen the Sabbath upon which to perform the act of healing at Bethesda. He could have healed the sick man as well on any other day of the week; or He might simply have cured him, without bidding him bear away his bed. But this would not have given Him the opportunity He desired. A wise purpose underlay every act of Christ's life on earth. Everything He did was important in itself and in its teaching. Among the afflicted ones at the pool He selected the worst case upon whom to exercise His healing power, and bade the man carry his bed through the city in order to publish the great work that had been wrought upon him. This would raise the question of what it was lawful to do on the Sabbath, and would open the way for Him to denounce the restrictions of the Jews in regard to the Lord's day, and to declare their traditions void." DA 206.2

6월 20일 금요일

추가 생각

"모든 영혼에게 시험이 임할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거짓 안식일의 준수가 우리에게 촉구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과 인간의 계명 사이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요구에 단계적으로 굴복하고 세상의 관습을 따랐던 사람들은 조롱과 모욕, 투옥과 죽음의 위협을 받는 대신 권세자들에게 굴복할 것입니다. 그 때 금은 진흙과 분리될 것입니다. 진정한 경건은 겉모습과 반짝임과는 분명하게 구별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광채에 감탄했던 많은 별들이 어둠 속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성소의 장식품을 취했지만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의 벌거벗은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PK 188.1

"모든 땅에 흩어져 있는 지구의 주민들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밤에만 나타나는 하늘의 별처럼, 이 충실한 사람들은 어둠이 땅을 덮고 사람들에게 심한 어둠이 깔릴 때 빛을 발할 것입니다. 이교도 아프리카, 유럽과 남미의 가톨릭 땅, 중국, 인도, 바다의 섬들, 그리고 지구의 모든 어두운 구석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하며 배교한 세상에 그분의 율법에 대한 순종의 변화시키는 힘을 분명히 드러낼 선택받은 자들의 궁창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모든 나라와 모든 방언과 백성 가운데 나타나고 있으며, 사탄이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모두' 거짓 안식일에 대한 충성의 표시를 죽음의 형벌로 받게 하려는 가장 깊은 배교의 시간에, '흠이 없고 책망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인' 이 충실한 자들이 '세상에서 빛으로 빛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16; 빌립보서 2:15. 밤이 어두울수록 그들은 더욱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PK 188.2

"The time is not far distant when the test will come to every soul. The observance of the false sabbath will be urged upon us. The contest will be between the commandments of God and the commandments of men. Those who have yielded step by step to worldly demands and conformed to worldly customs will then yield to the powers that be, rather than subject themselves to derision, insult, threatened imprisonment, and death. At that time the gold will be separated from the dross. True godliness will be clearly distinguished from the appearance and tinsel of it. Many a star that we have admired for its brilliance will then go out in darkness. Those who have assumed the ornaments of the sanctuary, but are not clothed with Christ's righteousness, will then appear in the shame of their own nakedness. PK 188.1

"Among earth's inhabitants, scattered in every land, there are those who have not bowed the knee to Baal. Like the stars of heaven, which appear only at night, these faithful ones will shine forth when darkness covers the earth and gross darkness the people. In heathen Africa, in the Catholic lands of Europe and of South America, in China, in India, in the islands of the sea, and in all the dark corners of the earth, God has in reserve a firmament of chosen ones that will yet shine forth amidst the darkness, revealing clearly to an apostate world the transforming power of obedience to His law. Even now they are appearing in every nation, among every tongue and people; and in the hour of deepest apostasy, when Satan's supreme effort is made to cause "all, both small and great, rich and poor, free and bond," to receive, under penalty of death, the sign of allegiance to a false rest day, these faithful ones, "blameless and harmless, the sons of God, without rebuke," will "shine as lights in the world." Revelation 13:16; Philippians 2:15. The darker the night, the more brilliantly will they shine." PK 188.2

추가 연구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WhatsApp: (+63)961-954-0737

contact@advancedsabbathschool.org